

# 일 본 의

## 양 계 현 황



[산란계편]

1. 역사적 배경
2. 생 산
3. 유 통
4. 소 비
5. 이 율
6. 정 책

— 미 곡물협회 한국지부 제공 —

### 〈생산비의 증가〉

### 2. 생 산

계란생산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1968년에는 5.5% 증가하여 24,600,000개의 계란을 더 생산했다. 전국의 산란계수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해 왔으며 가격조건이 좋은 호경기의 연도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불경기의 해에는 약간 증가하거나 어느 해는 줄어든 때도 있었다. 한편 양계를 떠나는 농가 수는 계란의 가격조건과는 상관없이 매년 200,000호 이상이 되어 왔다. 1968년에는 316,000호가 줄어든데 비해 1969년에는 251,000호가 줄어 들었다.

양계를 중단하고 다른 분야로 떠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비용의 증가 때문이었다. 농림성 통계에 의하면 계란 100kg 생산당 평균 비용이 1967년의 일화 ₩16,275에서 1968년에는 ₩16,893으로 증가했다. 농가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은 더욱 심했다. 100수 미만의 농가는 생산비용이 (100kg 계란생산당) ₩20,823인데 비해 3000수 이상일 때는 ₩15,455이었다.

생산비용중 주요소는 사료비, 노임, 산란개사기까지의 닭의 감가상각비이다. 1968년의 총 비용 중 이 3요소가 총생산비용의 95%를 차지하

〈표 1〉 산란계수 및 계란 생산 (1955~1969)

	산란계농가수	지수	산란계수	지수	년간 계란 생산량	지수	년간 수당 계란 생산량	지수
1955	단위:천 4,507	100	단위:천 39,588	100	단위:천 6,742,780	100	176	100
1960	3,838	85	44,500	112	9,559,606	142	204	116
1965	3,243	72	88,090	223	18,625,000	276	219	124
1966	2,767	61	81,240	205	18,707,000	277	224	127
1967	2,508	56	89,030	225	23,307,000	346	227	129
1968	2,192	49	90,761	229	24,619,400	367	230	131
1969	1,941	43	109,910	278	—	—	—	—

- 본 테이블은 2월 1일 현재의 수치이며 기준달이 틀리면 비교할 수 없다.
- 1955년의 통계숫자는 부모계와 그의 계란을 포함한다.  
1965년 이후의 수치는 부모계와 그의 계란을 포함한다.
- 자료: 농림성

〈표 2〉

계군에 따른 생산비용 (1968년)

(단위: 원/계란 100kg)

계군	노임	사료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실비 감가상각비	닭의감 가상각비	지은행 대자	기타비용	감소된 부산물수입	총계
50~99	4,434	11,998	1,289	3,342	839	117	1,196	20,823	
100~299	3,267	11,491	932	2,875	689	100	1,003	18,351	
300~499	2,559	11,302	743	2,899	594	89	878	17,308	
500~999	1,957	10,929	822	2,912	595	86	754	16,547	
1,000~1,999	1,475	11,037	837	2,809	566	87	744	16,327	
2,000~2,999	1,735	10,698	986	2,759	557	103	695	15,883	
3,000 이상	1,172	10,717	869	2,770	543	112	728	15,455	
평균	2,089	11,063	883	2,970	603	98	813	16,893	
평균(1970)	1,907	11,135	669	2,645	752	82	915	16,275	

자료: 농림부

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몇가지 보다 덜 중요한 항목에서 일어났다. 1968년의 설비 투자비용은 1967년보다 거의 43% 증가했고 재료비용은 거의 60% 증가했으며 감가상각 및 수선비도 거의 20%나 증가했다. 한편 사료비는 약간 감소했고 노임은 10% 미만 증가했다. 항목별 평균 증가비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비용의 증가 (1967~1968)

항목	증가액	증가비율 (%)
노임	₩ 182	9.5
재료비	91	59.4
사료비	(72)	(0.01)
감가상각수선비	81	19.4
실비	42	42.4
닭의감가상각비	325	12.3
지은행대	2	3.63
은행이자	(151)	(0.22)
기타	16	19.5
부산물수입감소	(102)	(0.11)
실제증가액	618	

양계업을 그만둔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농가이다. 계군이 증가함에 따라 양계업자들은 비용의 효율은 깨닫게 되었다. 1968년에 계군이 3,000수 이상되면 100수 미만일 때에 비하여 생산비용의 효율이 25% 이상 개선을 보았다.

소규모 농가는 그 계군에 더 이상 자본을 묶어 두느니 차라리 종지부를 찍는 편이 더 낫았으며 박한 수입을 깨닫게 되고 양계를 부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업적 소규모 농가는

더 이상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더 좋은 부업이 나타나면 곧 그만두게 된다.

점차 증가하는 노동력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도시에서 멀리 옮아가는 양계업자가 점점 증가했다. 이와같이 계란생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산란계 농가수는 점점 줄어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소의 규모를 막론하고 산란계의 거의 100%가 모두 배합사료를 충분히 공급 받고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일수록 사양관리면에서 더 철저하지 못했다. 노임이 상승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완전 자동화된 설비를 갖춘 농가는 거의 없었다. 손으로 계란을 수집하는 농가에서 대부분 직면하는 문제는 계란 수집기구의 부족이다. 대규모 양계업자중 전문가 몇 사람은 팽팽한 노동력 관리로 특징을 갖고 있다.

〈위 치〉

양계농가가 급격히 줄어든 또 다른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구분으로 인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 때문이다. 농가의 위치가 양계 금지 지역을 설정하여 제한함으로써 금지구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농가들은 팔아 치우거나 양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다른 곳에 땅을 구입하여 개인 양계단지를 만드는 사람 또 서로 그룹을 형성하여 원료의 구입과 생산물의 판매를 하나로 하여 대량 거래의 우세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하튼 양계농가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멀리

옳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 〈정부 지원 부족〉

양계농가수가 줄어든 이유는 앞으로도 많다. 양계업을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양계인과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는 정부가 잘 돌보던 때도 있었지만, 근래의 농림성 정책은 앞으로 양계는 충분히 만족할만큼 계란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내다보기 때문에 소규모 양계업에 대한 계획에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에 대한 정부부족 답변이 긍정이든 아니든 소규모 농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60년대 중반기 이래로 그들에게 불리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계농가수의 감소를 수반하면서 양계업은 날로 번창해 갔으며 이 현상은 50년대 말기와 60년대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결국 농가호수당 산란계 사육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총 생산에 대한 효율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산란계농가의 감소에도 아직 평균 사육수는 비효율적이었다. 1968년 12월 1일 현재의 총 사육농가 1,947,000에 대한 평균 사육수는 60수미만 이었다. 100수 미만의 농가수는 총 산란계 보유농가의 거의 90%에 달한다고 1968년 정부 일체 조사에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 계란생산의 60%가 소규모 농가(사육수 3,000수미만)에서 나왔다는 정부 조사의 결과에 비하면 일본의 계란생산은 상당히 소규모의 농가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계속 양계농가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일본의 평균 사육수는 너무 많은 부업적 양계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는 급속히 증가할 것 같지가 않다.

### 〈외국계의 산란계〉

전국의 산란계 중 약 70%가 외국계통이다. 일본에는 31개 품종의 산란계 종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것은 직접 혹은 계약과 대리인을 거쳐 도입된다. 사육수가 집중된 26개 지방에 하이라인과 테칼브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 일본에 도입된 외국계통 산란계

#### 회 사

- 킵버
- 셰버(캐나다)
- H & N
- 스톤
- 한슨
- 네물라
- 하이라인
- 호베가
- 테칼브
- 아이디알
- 가버
- 윌프
- 고스티
- 코로나알
- 싸이크스(영국)
- 아바에카
- 와렌
- 스타트넬드
- 하코
- 그린스타
- 피아이
- 블렌더
- 하바드
- 팍스
- 스타알링(영국)
- 손바(영국)
- 카메론
- 단릭(덴마크)
- 컷트만(독일)
- 윌샤(캐나다)

지금 우리는 國際政治의 소용돌이 속에서 來日의 運命을 豫測할 수 없는 緊迫한 時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民族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